

제 1 교시

국어 영역

[1~2] 다음은 어떤 학생의 발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저는 여러분께 간송 전형필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간송 전형필은 1906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당시 서울에서 손꼽히는 갑부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전형필은 사재를 들여서 문화재를 수집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당시에 기와집 한 채 값이 천 원 정도였는데, 그는 기와집 열 채 값을 치르고 고려청자나 조선백자를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수집 초기에는 많은 돈을 들여 낡은 그림과 그릇, 책을 사들이는 이런 전형필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집안을 말아먹을 철부지’, ‘바보 같은 남자’라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간송 전형필은 문화재의 가격을 정할 때, 그것을 파는 사람이 요구하는 액수가 아니라 그 문화재가 지닌 진정한 가치를 판단하여 그 가치에 걸맞은 값을 치렀습니다.
 (‘시각 자료 1~3’을 순서대로 보여 주며) 이것은 전형필이 수집한 추사 김정희의 작품입니다. 이것은 우리 강산을 담은 겸재 정선의 산수화이고 이것들은 김홍도와 신윤복의 풍속화들입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한국 전쟁 때 피란길에서도 전형필이 소중하게 간직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파는 사람이 원하는 값의 열 배를 주고 샀다는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각 자료 4’를 보여 주며) 이것이 방금 전에 말했던 그 물건입니다. 바로 훈민정음 원본입니다.
 간송 전형필이 전 재산을 털어 모았던 그 문화재들은 현대에 와서 훌륭한 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문화재들 중 국보로 지정된 것이 12점이나 되고, 보물로 지정된 것이 10점, 서울시 지정 문화재가 4점입니다.
 이처럼 간송 전형필 덕분에 우리 곁에 남게 된 소중한 문화재들은 지금 간송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매년 두 번씩이 문화재들을 전시한다고 하니, 여러분도 꼭 한 번쯤은 이곳을 방문하여 소중한 우리 문화재들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학생이 세웠던 발표 계획 중,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① 질문을 통해 청중의 관심을 유발해야겠어.
 ②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내용의 전달 효과를 높여야겠어.
 ③ 일화를 소개하여 인물에 대한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어.
 ④ 청중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권유하며 발표를 마무리해야겠어.
 ⑤ 널리 알려진 사람의 명언을 인용해서 발표 의도를 부각해야겠어.
2. 발표를 듣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은?
 ① 전형필이 수집한 문화재들의 예
 ② 전형필이 수집한 문화재들의 가치
 ③ 전형필이 문화재를 수집하게 된 계기
 ④ 전형필이 문화재 구입 가격을 정할 때의 판단 기준
 ⑤ 전형필이 문화재 수집 초기에 비웃음을 받았던 이유

[3~4] 다음은 어떤 옷가게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은채: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나오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 애들아, 이 옷 어때? 예쁘지 않니?
 민서: (당황한 표정을 애써 감추며) 빨간색은 아무나 소화하기 어려운데, 네가 입으니까 그래도 괜찮네. ㉡ 근데 너한테는 검정색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저 검정색 옷도 한번 입어 보지 그래?
 은채: (미소 지으며) ㉢ 그럴까?
 서우: ㉣ 검정색이 훨씬 나아. 빨간색은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은채: (언짢은 표정으로) 그렇게 이상해? 한번 갈아입어 볼게. (입고 나오며 거울을 보고) 음……. 글썬? 난 둘 다 괜찮아 보이는데, 확실히 아까 것보다 이게 나을까?
 민서: ㉤ 내 생각엔 이 색깔이 네 하얀 피부를 더 부각시켜 주는 것 같아. 소재가 도톰해서 아직 쌀쌀한 요즘 날씨에 입기도 적당하고, 박음질 상태도 이 옷이 더 나은 거 같은데?
 은채: 그래, 그럼 이 걸로 해야겠다. 아주머니, 이 옷으로 할게요. 얼마예요?
 가게 주인: 그 검정색 원피스 말이지? 4만 5천 원이다.
 은채: 4만 5천 원이요? 너무 비싸네요.
 가게 주인: 이게 원래 5만 원이었다가, 오늘부터 할인하는 상품이라 더 싸게는 곤란한데.
 은채: 음……. 제가 지금 4만 원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4만 원에 주시면, 제 동생한테 이 가게 소개해 주세요. 다음 주에 이모 결혼식이 있는데, 동생도 결혼식에 입고 갈 원피스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A] 가게 주인: (웃으며) 좋아. 학생이 단골이기도 하고, 동생도 데려온다고 하니 특별히 4만 원에 줄게.
 은채: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상대의 공감을 얻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
 ② ㉡: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다.
 ③ ㉢: 상대의 권유를 받아들일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④ ㉣: 우회적 표현으로 자신의 생각을 완곡하게 전달하고 있다.
 ⑤ ㉤: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A] 부분에 나타난 은채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서로 양보함으로써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것을 제안하였다.
 ② 미래에 발생할 이득을 내세우며 상대의 양보를 요구하였다.
 ③ 상대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던졌다.
 ④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⑤ 상대의 요구가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다

[5~6] 다음은 신문 기사를 쓰기 위한 면담의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영서: 안녕하세요? 저번에 전화 드렸던 이영서입니다. 바쁘신 데도 이렇게 면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학교 신문에 기사를 쓸 때 참고하려고 하는데, 혹시 녹음을 해도 될까요?
 형주: 네, 그렇게 하세요.
 영서: ㉡ 그럼 우선 의료 봉사란 무엇이고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주: 의료 봉사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무상으로 진료를 해 드리는 일이에요. 이 활동을 통해서 환자들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능력을 함양하기도 하지요.
 영서: 그렇군요. ㉢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하루에 수백 명까지 환자를 보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어떻게 다 돌볼 수 있나요?
 형주: 아, 비결이 있다면, 역할을 분담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영서: ㉣ 어떻게 역할을 나누나요?
 형주: 환자들을 안내하는 일, 진료하는 일, 치료하는 일 등을 학년별로 나누어서 맡지요.
 영서: ㉤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마지막으로 한의대생의 의료 봉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한마디 해 주세요.
 형주: 의료 봉사를 하다 보면, 사실 몸은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피곤함보다는 보람이 더 큰 것 같아요. 영서 군도 한의대에 입학해서 이런 보람을 꼭 느껴 봤으면 좋겠네요.
 영서: 네, 꼭 그럴게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기록을 위한 보조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허락을 구하고 있다.
- ② ㉡: 면담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면서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 ③ ㉢: 미리 알고 있던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고 있다.
- ④ ㉣: 답변을 듣고 궁금한 점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 ⑤ ㉤: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며 상대의 말에 반응하고 있다.

6. <보기>는 면담 내용을 토대로 학교 신문에 신기 위해 쓴 글이다. ㉠~㉤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2014년 3월 9일, 한국대학교 한의학과에 재학 중인 최형주 씨를 만나 한의학과 학생들의 의료 봉사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한의대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서, 아픈 사람을 돌보기도 하고 의료인의 ㉠ 성격을 기르기도 한다고 한다. 봉사 현장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명에 달하는 환자를 돌보게 된다. ㉡ 그러나 한의대생들은 이처럼 ㉢ 다수의 많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학년별로 역할을 분담한다. 최형주 씨는 비록 몸은 힘들지만 봉사의 즐거움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의료 봉사의 ㉣ 매력이라고 하였다. ㉤ 의료 봉사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무상으로 진료를 해 드리는 활동이다.

봉사의 참 뜻을 실천하려는 예비 의료인들의 열정이 식지 않는 한, 의료 봉사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 ① ㉠: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자질'로 교체한다.
- ② ㉡: 접속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래서'로 고친다.
- ③ ㉢: 의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다수의'를 삭제한다.
- ④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고려하여 '매력이다'로 고친다.
- ⑤ ㉤: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문단의 맨 앞으로 옮긴다.

7. <보기>의 '작문 상황'과 '내용 구성 방향'을 고려한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작문 상황]

- 집필 동기: 스승의 날을 맞아 감사의 뜻을 전함.
- 예상 독자: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 글의 형식: 일반적인 편지글 ㉠

[내용 구성 방향]

1. 자신의 근황 ㉡
2. 선생님과의 추억 회고 ㉢
3. 선생님에 대한 감사 ㉣
4. 선생님의 건강 기원 ㉤

- ① ㉠을 고려하여, '○○○ 선생님께'라는 말로 시작해서 '△△△ 올림'이라고 끝을 맺어야겠군.
- ② ㉡을 고려하여,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야겠군.
- ③ ㉢을 고려하여, 체육대회에서 선생님과 함께 2인3각 경기에 참가했던 일을 언급해야겠군.
- ④ ㉣을 고려하여, 진로 문제로 고민할 때 조언해 주셨던 일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표현해야겠군.
- ⑤ ㉤을 고려하여, 선생님은 내 가슴속에 참다운 스승으로 영원히 남으실 것이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해야겠군.

[8~9] <보기>는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하기’를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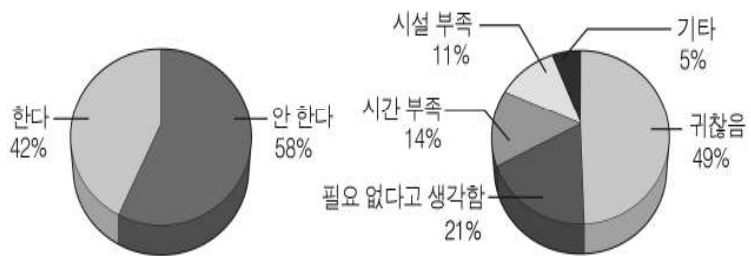
< 보 기 >

(가) 신문 기사

최근 청소년들의 치아 건강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치아는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기 어렵고, 영구치는 한 번 빠지면 다시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치아를 잘 관리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식사 후 칫솔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점심 식사 후 칫솔질’ 관련 설문 조사

1. 칫솔질을 하는 학생의 비율 2. 칫솔질을 하지 않는 이유



(대상: 우리 학교 학생 350명)

(다) 학교 보건 교사 인터뷰

치아 건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칫솔질입니다. 그런데 규칙적인 칫솔질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칫솔질 방법입니다. 칫솔질에도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쓸듯이 닦는 것입니다.

8. ‘점심 식사 후 칫솔질’을 권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보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를 활용하여,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식사 후 칫솔질이 중요함을 밝힌다.
- ② (나)-1을 활용하여, 우리 학교는 점심 식사 후 칫솔질을 하는 학생보다 하지 않는 학생이 더 많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소개한다.
- ④ (가)와 (나)-2를 활용하여,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점심 식사 후 칫솔질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 ⑤ (가)와 (다)를 활용하여, 치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칫솔 선택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한다.

9. ‘점심 식사 후 칫솔질’을 권장하기 위한 홍보 문구를 만들고자 한다.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조 건 >

- 규칙적인 칫솔질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
- 은유와 대조의 표현 방법을 활용할 것.

- ① 칫솔질을 한 입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칫솔질은 입안의 공기 청정기입니다.
- ② 충치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세요? 하루 3번 이상, 식후 3분 이내, 3분 이상 닦으세요.
- ③ 식사 후 빠짐없이 하는 칫솔질이 여러분의 치아를 건강하게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 ④ 하루 세 번의 칫솔질, 치아를 건강하게 합니다. 하루 한 번의 칫솔질, 치아를 상하게 합니다.
- ⑤ 세 번 하면 멀어지고, 한 번 하면 가까워집니다. 하루 세 번의 칫솔질은 치아 건강의 버팀목입니다.

10. <보기 1>은 ‘서평 쓰기’에 대한 선생님의 조언이다. 이에 따라 <보기 2>의 개요를 수정·보완할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1 >

『삼국유사』의 서평을 쓴다고? 『삼국유사』는 우리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좋은 책이지. ‘서평’을 쓰려면 먼저 책을 선정한 동기를 밝힌 다음, 책 내용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밝혀 주는 것이 좋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을 읽은 소감과 함께 친구들에게 권유하는 내용으로 끝맺으면 돼.

< 보 기 2 >

- 제목: 『삼국유사』의 작가, 일연 ㉠
- [처음] 『삼국유사』를 선정한 동기
- [중간] 『삼국유사』의 기록 방식 ㉡
- 1. 『삼국유사』의 내용
 - ㉢. 고대 국가의 왕조와 역사
 - ㉣. 효행을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
 - ㉤. 고대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를 담은 책 ㉢
 - 2. 『삼국유사』의 의의
 - ㉥. 선조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책
 - ㉦. 『삼국유사』를 발견한 계기 ㉣
- [끝] 『삼국유사』 읽기의 권유 ㉤

- ① ㉠은 서평의 전체 내용을 고려하여 ‘선조들의 생생한 삶의 기록, 『삼국유사』’로 바뀌어야겠어.
- ② ㉡은 하위 항목의 내용을 포괄하도록 ‘『삼국유사』의 목차’로 바뀌어야겠어.
- ③ ㉢은 상위 항목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므로 ‘[중간]-2’의 하위 항목으로 옮겨야겠어.
- ④ ㉤은 상위 항목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으므로 삭제해야겠어.
- ⑤ ㉤에는 선생님의 조언을 고려하여 ‘책을 읽은 소감’을 추가해야겠어.

11.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지수: 성모야, 내가 낀 장갑 어때?
 성모: ㉠ 그것 참 예쁘네. 어디서 샀어?
 지수: 우리 언니가 생일 선물로 준 건데, 우리 동네 시장에 있는 가게에서 샀대. 거기 가르쳐 줄까?
 성모: ㉡ 여기서 쉽게 찾아 갈 수 있을까?
 지수: ㉢ 저기 학교 앞 정류소에서 11번 버스를 타고 다섯 번째 정류소에서 내리면 편의점이 있을 거야. ㉣ 거기서 우측 골목으로 조금 더 가면 바로 ㉤ 그곳이야.

- ① ㉠은 '지수'가 끼고 있는 '장갑'을 가리키는 말이다.
- ② ㉡은 '성모'와 '지수'가 대화하고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 ③ ㉢은 듣는 이인 '성모'와 가까이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 ④ ㉣은 대화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로, '편의점'을 가리키는 말이다.
- ⑤ ㉤은 '지수'의 언니가 장갑을 산 '가게'를 가리키는 말이다.

12. <보기 1>의 설명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 중 합성어에 해당하는 말을 바르게 고른 것은?

— < 보 기 1 > —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고 하고,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라고 한다. 복합어에는 두 종류가 있다. '손(어근) + 수레(어근)'와 같이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는 합성어이고, '사냥(어근) + 끈(접사)'과 같이 어근에 접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는 파생어이다.

— < 보 기 2 > —

㉠ 물고기가 그려진 ㉡ 지우개가 어디로 갔을까? ㉢ 심술쟁이 동생이 또 ㉣ 책가방에 숨겼을 거야. 그래 보았자 이 누나는 금방 찾는데.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3. <보기>의 ㉠에 추가할 수 있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표준 발음법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ㄷ, ㄷ, ㄷ, ㄷ), ㄴ(ㄴ, ㄴ, ㄴ, ㄴ, ㄴ, ㄴ), ㄹ(ㄹ, ㄹ, ㄹ, ㄹ)'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 예: 국민[궁민], 앞마당[암마당] ㉠

- ① 국물 ② 먹이 ③ 밤낮 ④ 손재주 ⑤ 가을걷이

14. <보기>를 참고할 때, 피동 표현의 예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 능동 표현: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것을 나타냄.
 예) 호랑이가 토끼를 잡다.
- 피동 표현: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냄.
 예)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히다.

- ① 동생에게 사탕을 빼앗기다.
- ② 운동장에서 친구를 만나다.
- ③ 친구가 기쁜 소식을 전하다.
- ④ 교장 선생님께 고개를 숙이다.
- ⑤ 할머니께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다.

15.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문장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1 > —

문장의 성립을 위해서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이를 탐구해 보자.

윤아는 맑은 하늘을 좋아한다.
 ㉠ ㉡ ㉢ 서술어

[탐구 과정]

- 1) ㉠이 없을 경우: '좋아한다'의 주체(주어)가 빠져서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 2) ㉡이 없을 경우: '하늘'을 꾸며 주는 말(관형어)이므로, 문장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3) ㉢이 없을 경우: '윤아'가 좋아하는 대상(목적어)이 빠져서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탐구 결과]

'좋아한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 보 기 2 > —

ㄱ. 희선이는 맛있는 빵을 먹었다.
 ㄴ. 빨간 장미꽃이 활짝 피었다.

- ① ㄱ은 '희선이는'을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
- ② ㄴ은 '빨간'과 '장미꽃이'를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
- ③ ㄱ의 '먹었다'와 ㄴ의 '피었다'는 모두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 ④ ㄱ의 '맛있는'과 ㄴ의 '활짝'은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다.
- ⑤ ㄱ의 '먹었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고, ㄴ의 '피었다'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나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나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니.....

- 신석정, 「들길에 서서」 -

* 부절히: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나) 그래 살아 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살아 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 되어 있는 풀

둥근 공이 되어

옳지 최선의 풀

지금의 네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 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 정현중,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

1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직유법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②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하여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 ④ 다양한 색채어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⑤ 첫 연과 끝 연의 구조를 통일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17. <보기>를 활용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들길에 서서」는 일제 강점기인 1939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자연과 마주하며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숭고하고 거룩한 이상을 지향하고 있다. 당대의 어두운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를 자연물 속에서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 ①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는 표현에서 긍정적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엿볼 수 있군.
- ②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자연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군.
- ③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살면서 자연으로 도피함으로써 시대적 고통을 잊고자 하는군.
- ④ '저문 들길에'라는 표현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군.
- ⑤ '별을 바라보는 것'은 자연과 마주하며 이상을 지향하는 태도로 볼 수 있군.

18. <보기 1>을 참조할 때, <보기 2>에서 (가)의 '지구'와 (나)의 '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 보기 1 >

상징적 차원에서 '구(球)'는 모든 물체의 원형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형태는 보통 완전함이나 최선의 모양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모나지 않아 원만하고, 본모습을 쉽게 회복하며, 정지한 상태보다는 운동하는 상태가 어울린다.

(가)의 '지구'와 (나)의 '공'도 이러한 의미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 보기 2 >

ㄱ. '공'은 화자가 닦고자 하는 최선의 존재로 표현되어 있어.
 ㄴ. '지구'는 '공'과 달리 모나지 않은 원만함이 강조되고 있군.
 ㄷ. '지구'는 '공'과 달리 본모습을 쉽게 회복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군.
 ㄹ. '지구'와 '공' 모두 끊임없는 운동성을 가진 대상으로 형상화되어 있어.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19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大平盛代)

날리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大平盛代)

잡사와 두어리마나는*
 선하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대(大平盛代)

설은* 님 보내옵나니 나는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大平盛代)

- 작자 미상, 「가시리」 -

*나는: 특별한 의미 없이, 음악적 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여음.
 *잡사와 두어리마나는: 붙잡아 두고 싶지만.
 *선하면: 서운하면. 귀찮게 하면.
 *아니 올세라: 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설은: 서러운.

(나) 어이 못 오던가 무삼 일로 못 오던가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
 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케를 놓고 그
 안에 너를 필자형(必字形)으로 결박하여 넣고 쌍배목(雙
 排目)* 결쇠에 금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잠가 있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더냐
 한 해도 열두 달이오 한 달 서른 날에 날 와 볼 하루 없
 으랴

-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 -

*쌍배목: 쌍으로 된 문고리를 거는 쇠.

19.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열거법을 사용하여 시의 리듬감을 높이고 있다.
 - ②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감탄사를 사용하여 부정적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⑤ 배경을 묘사한 후 그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0. (가)의 시적 상황을 경험한 화자가 (나)의 노래를 했다고 가정할 때, (나)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별 당시 임을 서운하게 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후회하고 있다.
 - ② 임을 원망했던 이별 당시의 마음이 사라지면서 그리움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 ③ 임을 떠나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행동을 자책하고 있다.
 - ④ 임이 돌아오기를 바라던 이별 당시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⑤ 임이 떠날 당시의 괴로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차분한 마음으로 임을 기다리고 있다.

21. (가)를 심화 학습하는 과정에서 <보기>의 자료를 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시리'의 형식상 특징]

- 3음보를 기본 율격으로 하여 리듬감을 형성함.
- 음악적 효과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하는 후렴구를 반복함.

['가시리'의 내용상 특징]

- 자신에게 닥친 부당한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한(恨)의 정서가 나타남.
- 이별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체념하는 소극적인 화자의 태도가 담겨 있음.

- ① '가시리 가시리잇고'에서 3·3·2조의 3음보 율격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위 증즐가 대평성대'는 음악적 효과를 높여 주는 후렴구라고 할 수 있군.
- ③ '날리는 어찌 살라 하고'는 임을 붙잡지 못하고 체념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선하면 아니 올세라'에는 이별의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드러나 있군.
- ⑤ '설은 님 보내옵나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한의 정서가 담겨 있군.

[22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소상강 떼기러기 가노라 하직하고 강남서 나온 제비는 왔노라 나타날 때, 오대양에 앉았다가 이리 저리로 날며 넘놀면서, 흥부를 보고 반겨라고 좋을 호(好)자 지저귀니, 흥부가 제비를 보고 경계하는 말이,

“고대광실* 많건마는 수숫대 집에 와서 네 집을 지었다가 오뉴월 장마철에 털썩 무너지면 그 낭패가 아니겠느냐?”

제비가 듣지 않고 흙을 물어 집을 짓고, 알을 안아 깨인 후에 날기 공부를 힘쓸 때에, 뜻밖에 구렁이가 들어와서 제비 새끼를 몰수이 먹으니, 흥부 깜짝 놀라 하는 말이,

“흉악한 저 짐승아, 좋은 음식 많건마는 무죄한 저 새끼를 모조리 잡아먹으니 악착스럽다. 제비 새끼가 은나라 대성황제를 낳았고, ㉠ 곡식을 먹지 않고 살아나니 인간에 해가 없고, 옛 주인을 찾아오니 제 뜻이 다정하지만, 제 새끼가 이제 다 죽임을 당했으니 어찌 불쌍하지 않으리.”

이렇게 경계할 때, 이에 ㉡ 제비 새끼 하나가 공중에서 뚝 떨어져, 대밭 틈에 발이 빠져 자끈 부러져 피를 흘리고 발발 떠니, 흥부가 보고 필쩍 뛰어 달려들어 제비 새끼를 손에 들고 불쌍히 여기며 하는 말이,

“불쌍하다 이 제비야, 은왕 성탕(成湯)의 은혜가 미쳐 금수를 사랑하여 다 길러 내었더니,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어찌 가련하지 않으리. 여복소, 아기어미 무슨 당사(唐絲)*실 있습니까?”

“아이고, ㉢ 끓기를 부자의 밥 먹듯 하며 무슨 당사실이 있단 말이요?”

하고, 천만 뜻밖의 실 한 뉘 얻어 주거늘, 흥부가 칠산*

조기 껌질을 벗겨 제비 다리를 싸고, 실로 곱게 감아 찬 이슬에 얹어 두니, 십여 일이 지난 뒤에 다리가 완전히 굳어 제 곳으로 가려하고 하직할 때, 흥부가 비감(悲感)하여 하는 말이,

“먼 길에 잘들 가고, 삼월에 다시 보자.” 하니,

저 제비 거동 보소. 두 날개 부는 바람에 몸을 날려 백운(白雲)을 비웃으며 주야로 날아 강남에 이르니,

제비 황제가 묻기를,

“너는 어이 저느냐?”

제비 여쭙기를,

“소신의 부모가 조선에 나가 흥부의 집에다가 집을 짓고 소신 등 형제를 낳았삽더니, 뜻밖에 구렁이의 변을 만나 소신의 형제는 다 죽고, 소신이 홀로 죽지 않으려고 하여 바르작거리다가 뚝 떨어져 두 발목이 자끈 부러져, 피를 흘리고 발발 떠온즉, 흥부가 ㉠ 여차여차하여 다리 부러진 것이 의구하여 이제 돌아왔사오니, 그 은혜를 십분지일이라도 갚기를 바라나이다.”

제비 황제가 하교하기를,

“그런 은공을 몰라서는 행세치 못할 금수라. 네 박 씨를 갖다 주어 은혜를 갚으라.”

(중략)

그달 저 달 다 지내고 3월 3일 다다르니, 강남서 나온 제비가 옛 집을 찾으려 하고 오락가락 넘놀 때에, 놀부가 사면에 제비집을 지어 놓고 제비를 들이모니, ㉡ 그 중 팔자 사나운 제비 하나가 놀부 집에 흙을 물어 집을 짓고 알을 낳아 안으려 할 때, 놀부놈이 주야로 제비집 앞에 대령하여 가끔가끔 만져 보니, 알이 다 꿍고 다만 하나가 깨었다. 날기 공부를 힘쓸 때, 구렁이가 오지 않으니, 놀부는 민망 답답하여 제 손으로 제비 새끼를 잡아 내려 두 발목을 자끈 부러뜨리고, 제가 깜짝 놀라 이르는 말이,

“가련하다, 이 제비야.”

하고 조기 껌질을 얻어 찬찬 동여 ㉢ 뱃놈의 닳줄 감듯 삼층 열레 연줄 감듯 하여 제 집에 얹어 두었더니, 10여 일 뒤에 그 제비가 9월 9일을 당하여 두 날개를 펼쳐 강남으로 들어가니, 강남 황제가 각처 제비를 점고*할 때, 이 제비가 다리를 절고 들어와 엎드렸더니, 황제가 신하로 하여금,

“그 연고를 사실하여 아뢰라.”

하시니, 제비가 아뢰되,

“작년에 웬 박 씨를 내어보내어 흥부가 부자 되었다 하여 그 형 놀부놈이 나를 ㉣ 여차여차하여 절뚝발이가 되게 하였사오니, 이 원수를 어찌하여 갚고자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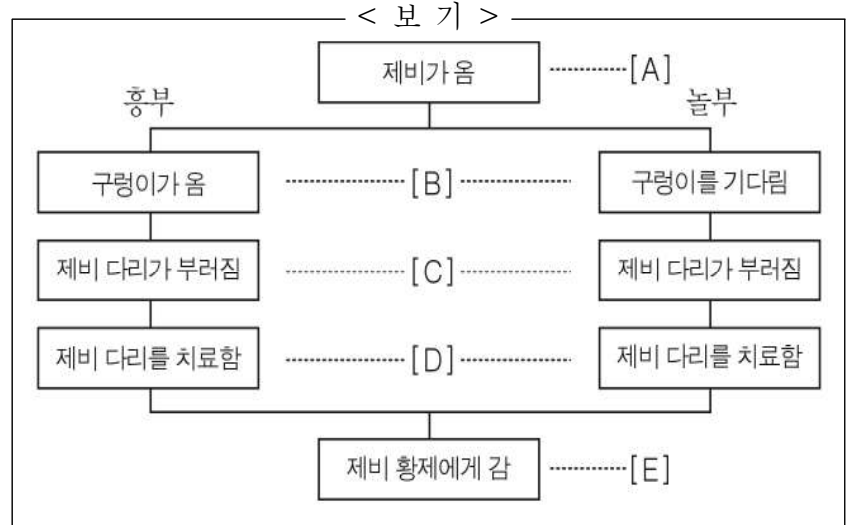
황제가 이 말을 들으시고 대경하여 말하기를,

“이놈 이제 전답 재물이 여유 있으되 동기를 모르고 오류에 벗어난 놈을 그저 두지 못할 것이요, 또한 네 원수를 갚아 주리라.”

- 작자 미상, 「흥부전」 -

* 고대광실(高臺廣室) : 매우 크고 좋은 집.
* 당사(唐絲) : 중국에서 들여온 명주실.
* 칠산 : 서해안에 있는 조기의 명산지.
* 점고(點考) : 일일이 점을 찍어 가며 조사함.

22. 윗글의 서사 구조를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을 때,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사건 전개상의 발단이 되는군.
- ② [B]에서 흥부는 구렁이를 ‘위협’의 존재로 생각하는 반면, 놀부는 ‘도움’의 존재로 생각하는군.
- ③ [C]는, 흥부에게는 의도하지 않은 사건이지만 놀부의 입장에서 의도적 사건이군.
- ④ [D]는, 흥부는 연민의 마음에서 한 행동이고 놀부는 물질적 욕심에서 한 행동이군.
- ⑤ [E]에서 제비 황제는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군.

23.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해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② ㉡ : 모습이나 소리를 흉내 낸 말을 사용하여 인상 깊게 표현하고 있다.
- ③ ㉢ :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④ ㉣ : 대상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이 반영되어 있다.
- ⑤ ㉣ : 비유적 표현을 반복하며 행동을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

24. ㉠와 ㉡의 쓰임을 고려할 때,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 고전 소설에서는 고전 소설만의 독특한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 ㉡의 ‘여차여차하다’도 고전 소설에 자주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작가가 인물의 대사 속에 ㉠, ㉡처럼 표현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학생 : _____

- ① 앞에서 전개된 사건의 반복적 진술을 피하게 합니다.
- ② 장면의 전환을 예고하여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 냅니다.
- ③ 사건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 ④ 하나의 사건을 독자가 다양한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유도합니다.
- ⑤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표현하여 성격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가문의 영달을 위해 자신의 딸 갑분이를 김판서 댁 아들 미연에게 시집보내려던 맹진사는, 미연이 불구라는 소문을 듣고 갑분이 대신 갑분이의 몸종 이뿐이를 시집보내려는 계락을 짠다.

제8장 맹진사네 안사랑

맹진사, 손가락을 폈다 굽혔다 하면서 대청 위를 오락가락 하는데 우측으로 사라졌던 박참봉이 이뿐이를 거느리고 우측 안방으로부터 한씨와 함께 나타난다. 새 옷으로 날아갈 듯 단장을 한 이뿐이. 핵 달라진 이뿐이의 모습에 맹진사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발한다.

맹진사: 응……. 이거야 말루 핵 판사람이 됐구나! 우리 입, 입 아니 갑분이가 과시 미인이로다!

한씨: (자신도 모르게 눈물지으며) 자, 어서 아버님에게 큰절을 해봐라!

이뿐이, 오들오들 떨고 있다.

한씨: 자, 어서 아버님 허구 부르구!

맹진사: 왜 말이 없느냐?

한씨: 어서!

이뿐이: 네 마님!

한씨: 마님? 그렇게 어머니라구 부르라구 가르쳐 줬는데도 또 마님이야?

이뿐이: 그렇지만 못하겠어요! 난 못해요!

맹진사, 한씨: 뭐야?

(노래 ‘어쩌면 좋아’)

이뿐이: 달님 별님 말해줘요

나는 못해요

이름 없는 풀꽃처럼 미천한 이 몸

말없이 다소곳이 살고 싶은데

아무 것도 모르는 도련님 속여

귀하신 그 품에 안긴다면

하늘이 노하실 엄청난 큰 죄

어쩌면 좋아요

나는 못해요

[A]

맹진사: 앵, 이 고얀 년!

한씨: 이 배은망덕한 계집애 같으니! (화가 나서 이뿐이를 꼬집는다.)

이뿐이: (비명) 아이구, 엄마!

맹진사: 옳지, 엄마가 아니구 어머니다! (한씨에게 눈짓하며) 다시 한 번!

한씨, 다시 이뿐이를 힘껏 꼬집는다.

이뿐이: 아이구, 어머니!

맹진사: 옳지!

이뿐이: 용서하세요. 나리 마님! (운다.)

맹진사: 나리 마님? 아버지라고 부르라니까!

이뿐이: 네!

맹진사: 그럼 이뿐아! 에그 이 망할 놈의 정신! 갑, 갑분아. 이제부터 네가 내 딸이라는 걸 꿈에라도 잊어선 안 된다. 알겠니?

한씨: 그리구, 나 보구두 어머니라구 불러야지. 마님! 해 놓고

보면 모든 게 낭패 보는 거니까 그리 알으렴!

이뿐이: (흐느끼며) 예! (고개를 끄덕인다.)

[중략 줄거리] 혼례 날, 미연은 건강한 모습의 새신랑으로 나타나고, 미연의 모습에 놀란 맹진사는 갑분이를 다시 데려오려 하지만 좌절되고 혼례는 치러진다.

제10장 맹진사네 안사랑

등근 달이 대낮처럼 밝은 밤이다. 이뿐이 녹의홍상 위에 활옷을 입은 채 방에서 뛰쳐나온다. 미연, 이뿐이를 끝내 달래지 못하고 방에서 나온다.

미연: 갑분 아가씨! 우리가 천지신명께 백년해로를 맹세한 부부라 할망정 그것은 일종의 형식에 불과한 것. 피차에 사랑이 없다면 이야긴 다른 거요. 갑분 아가씨! 내가 싫다면 솔직히 그렇다고 말해 주구려! 왜 대답을 못하오?

이뿐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미연: 그런 게 아니면?

이뿐이: 도련님! 전, 전 갑분 아가씨가 아니라 갑분 아가씨의 몸종이란 말예요! 도련님은 그것두 모르시구 자꾸만. (흐느낀다.)

미연: …….

이뿐이: 용서하세요! 도련님은 꿈추에 절름발이라구. 우리 아가씨 죽어두 싫다 하시구…….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천한 것이 죽는 셈치고…….

미연: 음…….

이뿐이: 차라리, 차라리 도련님께서 아무도 시집와 주는 색시도 없는 가엾구 쓸쓸한 양반이셨더라면, 그랬더라면……. (더욱 흐느끼며) 용서하세요! 죽을 죄를 졌 당께요.

미연: (그제서야 밝게 웃으며)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용서를 받을 사람은 오히려 나라고!

이뿐이: 예? (놀라 돌아본다.)

미연: 놀라지 마오! 실상 이번 일을 그렇게 꾸민 사람은 나요! 내가 바로 작은 아버지랑 함께 내가 꿈추 절름발이라는 헛소문을 퍼트렸단 말이오!

이뿐이: (더욱 놀라) 예? 아니 그럼? 무슨 까닭으로 왜 그런 소문을?

미연: 사람들의 무게와 깊이를, 부귀와 영화보다 착하고 깨끗한 마음씨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오!

- 오영진 원작, 박만규 극본, 「시집가는 날」 -

2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상징성을 띤 사물을 통해 작품의 주제 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하여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해설자 역할을 하는 인물이 등장하여 사건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⑤ 특정 인물이 몰랐던 사실이 밝혀지는 사건 전개로 극적 효과가 높아지고 있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혼인 당사자의 뜻을 고려하지 않는 구습 결혼 제도를 비판하며, 권세에 대한 인간의 허욕을 풍자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외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고 진실한 내면을 지닌 인간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신분을 초월한 인간 평등의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 ① ‘김판서’ 태과의 혼인을 성사시키려는 ‘맹진사’는 권세에 대한 허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이군.
- ② ‘미연’이 헛소문을 퍼트린 것에는 순수하고 진실한 내면을 지닌 인간을 만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군.
- ③ ‘미연’은 형식보다는 사랑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구습 결혼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
- ④ ‘한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연’과 혼인하는 ‘이뿐이’를 통해 신분을 초월한 인간 평등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어.
- ⑤ ‘미연’과 ‘이뿐이’의 혼인 과정을 통해, 결혼 상대방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혼인을 하게 되는 구습 결혼 제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

27.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뮤지컬 극에서 노래의 기능]

- 극의 분위기 형성, 반영, 전달
- 대사로 표현하기 어려운 인물의 성격이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 관객이 극중 인물의 감정에 동화되게 함.

- ① ‘달님 별님’을 가상의 청자로 삼아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토로하고 있군.
- ② 관객들은 노래를 들으면서 ‘이뿐이’의 서글픈 감정에 동화되어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겠군.
- ③ 노래를 통해 ‘이뿐이’와 ‘맹진사’ 사이의 갈등이 극적으로 해소되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군.
- ④ 대사가 아닌 노래로 표현하여 난처한 상황에 처한 ‘이뿐이’의 심정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는군.
- ⑤ 상대방을 속이고 결혼하는 일에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을 통해 ‘이뿐이’의 성격을 짐작하게 하는군.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한덕문은 빚을 갚고도 눈을 더 구입할 수 있다는 속셈으로 일본인 길천에게 자신의 눈을 판다. 하지만 길천으로 인해 땅값이 비싸지는 바람에 눈을 더 구입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이리하여 한덕문은 눈 일곱 마지기로 겨우 빚 원 냥을 갚고는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이 손 짹짹 털고 나선 셈이었다. 친구가 있어 한덕문을 책하면서 물었다.

“어떡허자구 눈을 판단 말인가?”

“인제 두구 보게나.”

“무얼 두구 보아?”

“일인들이 다 쫓겨 가면, 그 땅 도로 내 것 되지 갈 데 있던가?”

“쫓겨 갈 놈이 눈을 사겠나?”

“저이 놈들이 천지운수를 안다든가?”

“두구 보래두 그래.”

한덕문은 혼자 속으로는 아뿔사, 눈이래야 단지 그것뿐인 것을 팔고서 인제는 송곳 꽃을 땅도 없으니 이 노릇을 어찌한단 말이나고 심히 후회하여 마지아니하였다. 그러면서도 남더러는 그렇게 배포 있어 장담을 탕탕 하였다. 한덕문은 장차에 일인들이 쫓기어 가리라는 것을 확인할 아무런 근거도 가진 것이 없었다. 따라서 자신도 없었다. 오직 그는 눈을 판 명예롭지 못함과 어리석음을 싸기 위하여 그런 희떠운* 소리를 한 것일 따름이었다.

한덕문이, 일인들이 다 쫓기어 가면 그 눈이 도로 제 것이 될 터이라서 눈을 팔았다고 한다더라, 이 소문이 한입 두입 퍼지자 듣는 사람마다 그의 희떠움을 혹은 실없음을 웃었다.

하는 양을 보느라고 위정*

“자네 눈 팔았다면서?” 한다 치면

“팔았지.”

“어째서?”

“돈이 좀 아쉬워서.”

“돈이 아쉽다고 눈을 팔구서 어떡허자구?”

“일인들이 다 쫓겨 가면 그 눈 도루 내 것 되지 갈 데 있나?”

“일인들이 쫓겨 간다든가?”

“그럼 백 년 살까?”

또 누구는 수작을 바꾸어,

“일인들이 쫓겨난다지?” 한다 치면,

“그럼!”

“언제쯤 쫓겨 가는구?”

“에구 요 맹추야. 요 허풍선이야. 우리나라 상감님을 쫓어내구 저희가 왕 노릇을 하는데 쫓겨 가?”

“자넨 그럼 일인들이 안 쫓겨 가구, 영영 그대루 있으면 좋을 건 무언가?”

“종기루 할 말이야 일러 무얼 하겠나만, 우리 종구픈 대루 세상 일이 돼 준다던가?”

“그래두 인제 내 말을 일러 때가 오너니.”

“괜히 눈 팔구섬 할 말 없거들랑 국으루 잠자꾸 가만히나 있어요.”

“체에, 내 눈 내가 팔아먹는데, 죄 될 일 있나?”

“걸 누가 죄라니?”

“길천이한테 논 팔아먹은 놈이 한덕문이 하나뿐인감?”
 “누가 논 판 걸 나무래? 희편 장담을 하니깐 그러는 거지.”
 “희편 장담인지 아닌지 두고 보잔 말야.”
 이로부터 한덕문은 그 말로 인하여 마을과 인근에서 아주 호가 났고*, 어느 겨를인지 그것이 한 ㉠ 속담까지 되었다.

(중략)

한생원은 분이 나서 두 주먹을 쥐고 구장에게로 쫓아갔다.
 “그래 일인들이 죄다 내놓구 가는 것을 백성들더러 돈을 내구 사라구 마련을 했다면서?”
 “아직 자세한 모르겠어두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쉬우리라구들 하드군요.”
 해방 후에 새로 난 구장의 대답이었다.
 “그런 놈의 법이 어딴단 말인가? 그래, 누가 그렇게 마련을 했는구?”
 “나라에서 그랬을 테죠.”

“나라?”
 “우리 조선나라요.”
 “나라가 다 무어 말라비틀어진 거야? 나라 명색이 내게 무얼 해 준 게 있길래, 이번엔 일인이 내놓구 가는 내 땅을 저이가 팔아먹으려구 들어? 그게 나라야?”
 “일인의 재산이 우리 조선나라 재산이 되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당연?”
 “그렇죠.”

“흥, 가만둬 두면 저절로 백성의 것이 될 걸. 나라 명색은 가만히 앉았다 어디서 툭 튀어 나와 가지구 걸 뺏아서 팔아 먹어? 그따위 행사가 어딴단가?”
 “한생원은 그 논이랑 멧갓*이랑 길천이한테 돈을 받구 파셨으니깐 임자로 말하면 길천이지 한생원인가요?”
 “암만 팔았어두, 길천이가 내놓구 쫓겨 갔은간 도루 내 것이 돼야 옳지, 무슨 말야. 걸 무슨 탁에 나라가 뺏을 영으루 들어?”

“한생원한테 뺏는 게 아니라 길천이한테 뺏는 거랍니다.”
 “흥, 둘러다 대긴 잘들 허이. 공동묘지 가보게나. 핑계 없는 무덤 있던가? 저 병신년에 원놈(군수) 김가가 우리 논 열두마지기 뺏을 제두 핑젠 다 있었드라네.”
 “좌우간, 아직 그렇게 지레 염렐 하실 게 아니라, 기대리구 있노라면 나라에서 다 억울치 않두록 처단을 하겠죠.”
 “일없네. 난 오늘버튼 도루 나라 없는 백성이네. 제길, 삼십육 년두 나라 없이 살아 왔을려드나. 아니 글썄, 나라가 있으면 백성한테 무얼 줌 고마운 노릇을 해주어야 백성두 나라를 믿구 나라에다 마음을 붙이구 살지. 독립이 됐다면서 고작 그래, 백성이 차지할 땅 뺏아서 팔아먹는 게 나라 명색야?”

그러고는 털고 일어서면서 혼잣말로
 “독립 됐다구 했을 제 내 만세 안 부르기 잘했지.”

- 채만식, 「논 이야기」 -

* 희떠운: 말이나 행동이 분에 넘치며 버릇이 없는.
 * 위정: '일부러'의 사투리.
 * 호가 나다: 이름이 세상에 널리 드러나다.
 * 멧갓: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가꾸는 산.

2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속 인물이 다른 인물을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② 작품 속 인물이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내면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 ④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말과 행동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관찰하고 있다.
- ⑤ 특정한 서술자가 없이 장면마다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일제의 토지 정책으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땅을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해방 직후 토지의 소유 문제는 중요한 현안이었다. 이 작품은, 농민을 수탈하는 사회 제도가 해방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작가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땅을 갖고 싶다는 농민의 소망을 저버린 정부의 토지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독립의 역사적 의미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의식도 담고 있다.

- ① ‘길천’은 ‘한덕문’의 토지를 강제로 뺏었다는 점에서 일제의 제도적인 수탈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해방 후에도 토지의 소유주가 ‘길천’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구장’은 정부의 토지 정책을 비판하는 인물이군.
- ③ ‘한덕문’의 ‘친구’는 논을 판 ‘한덕문’을 옹호한다는 점에서 일제 강점기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자신이 판 논을 자신이 다시 구입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한덕문’은 정부의 토지 정책을 지지하는 인물이군.
- ⑤ 해방 후 독립 만세를 부르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한덕문’은 독립의 역사적 의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한 인물이군.

30. ㉠은 ‘한덕문’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의 내용에 대한 추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짓대 없이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을 비꼬는 속담이겠군.
- ② 자신의 앞가림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사람을 비꼬는 속담이겠군.
- ③ 목표를 위해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성과를 거두려는 사람을 비꼬는 속담이겠군.
- ④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을 시작하여 놓고 성공을 자신하는 사람을 비꼬는 속담이겠군.
- ⑤ 자신이 잘못을 해 놓고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을 비꼬는 속담이겠군.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사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유추이다. 유추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성질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기초하여 미루어 짐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학문 또는 예술 활동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흔히 행하고 있는 사고법이다.

유추는 '알고자 하는 특성의 확정 - 알고 있는 대상과의 비교 - 결론 내리기'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동물원에 가서 '백조'를 처음 본 어린아이가 그것이 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알고자 하는 대상'과 그 '알고자 하는 특성'을 확정하면 '백조가 날 수 있는가?'가 된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비둘기'를 떠올리고는 백조와 비둘기 사이에 '깃털이 있다', '다리가 둘이다', '날개가 있다' 등의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비교이다. 그 다음에 '비둘기는 난다'는 특성을 다시 확인한 후 '백조가 날 것이다'고 결론을 내리면 유추가 끝난다.

많은 논리학자들은 유추가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고 폄하한다. 유추를 통해 알아낸 것이 옳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위의 경우 '백조가 난다'는 것은 옳다.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타조'에 대해 '타조가 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사실에 어긋난다. 이는 공통점이 가장 많은 대상을 비교 대상으로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추를 통해 알아낸 것은 옳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할 수 있어도 틀림없다고는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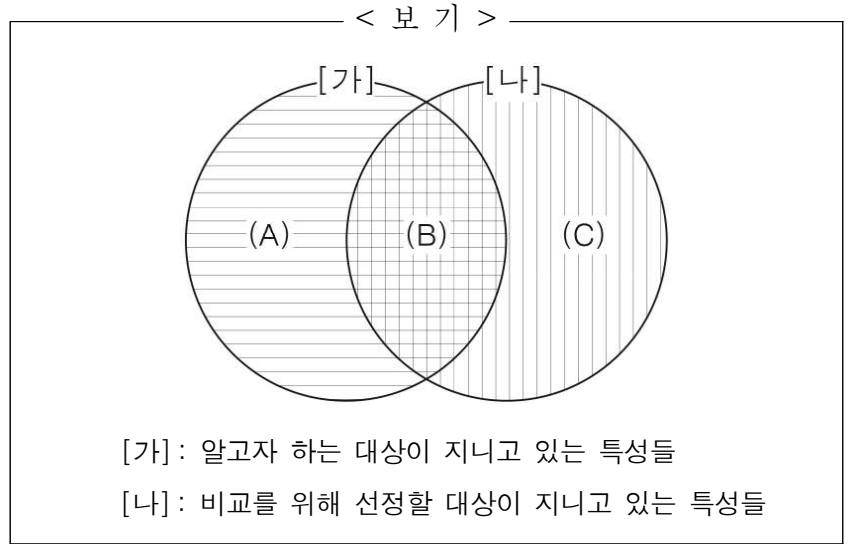
결국 ㉠ 유추를 통해 옳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범위 좁히기'의 과정을 통해 비교할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만약 어린아이가 수많은 새 중에서 비둘기 말고, 타조와 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 예를 들면 '몸통에 비해 날개 크기가 작다'는 공통점을 하나 더 갖고 있는 '닭'을 가지고 유추를 했다면 '타조는 날지 못할 것이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옳지 않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추는 필요하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알고 태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알아내지는 못한다. 그런데도 인간이 많은 지식을 갖게 된 것은 유추와 같은 사고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추의 활용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그 유형을 소개하고 있다.
- ② 유추의 방법과 효용을 알려주면서 그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유추에 대한 학문적 논의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소개하고 있다.
- ④ 유추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사고 방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 ⑤ 유추와 여타 사고 방법들과의 차이점을 부각하면서 그 본질을 이해시키고 있다.

32.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을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범위가 가장 넓은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
- ② (B)의 범위가 가장 넓은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
- ③ (C)의 범위가 가장 넓은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
- ④ (A)와 (C)의 면적 차이가 가장 큰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
- ⑤ (A), (B), (C)의 면적이 동일한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

3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화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행성인 지구와 비교함으로써 둘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에 비해 화성은 태양과의 거리가 지구와 가장 비슷하다. 화성은 대기 온도가 영하 76℃까지 떨어지기도 하지만 지구의 최저 기온과 크게 차이가 없는 편이다. 또한 화성에서는 지구에서와 같이 암석과 물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그런데 지구에는 생명체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화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 ① '화성과 태양의 거리'를 확인함으로써 '알고자 하는 특성'을 확정했다.
- ② 비교할 대상으로 '지구'를 선택했다.
- ③ '암석과 물의 존재' 등의 특성은 비교의 결과 확인한 공통점이다.
- ④ 결론을 내리기 전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지구'의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 ⑤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이다.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환경에서 개개의 종이 차지하는 위치를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데, 이는 서식 장소, 먹이사슬 등의 생태적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지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열대 지역의 나무도 마뱀의 생태적 지위는 견딜 수 있는 온도 범위, 서식할 수 있는 나뭇가지의 크기, 먹이가 되는 곤충의 종류 등 많은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생태적 지위가 유사한 종들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채 서식하고 있는 경우 이들을 ‘이소성 개체군’이라고 하고, 반대로 동일한 지리적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동소성 개체군’이라 한다.

이소성 개체군의 경우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을 둘러싼 ㉠종들 간의 경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동소성 개체군의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까? 생태학자 가우스는 원생생물인 ‘아우렐리아’와 ‘카우다툼’에 대한 실험으로 종간 경쟁의 결과를 조사했다. 이 두 종을 각각 배양했을 때에는 각각의 개체군은 모두 잘 살지만, 두 종을 함께 기르자 한 종이 사라지는 결과를 얻었다. 이처럼 동소성 개체군 사이에서는 필연적으로 경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경쟁의 결과 어떤 종이 군집 내에서 사라지게 되는 경우, 이를 ‘경쟁적 배제’라고 한다.

그런데 실제의 자연 생태계를 보면 동소성 개체군이 공존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들이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을 피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주행성 동물과 야행성 동물은 서로 활동하는 시간을 달리하여 경쟁을 줄임으로써 공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존에 꼭 필요한 자원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나누어 갖는 것을 ㉡‘분서’라고 한다. 분서의 방식에는 장소를 나누어 서식하는 방식, 먹이를 먹는 활동 시간대를 달리하는 방식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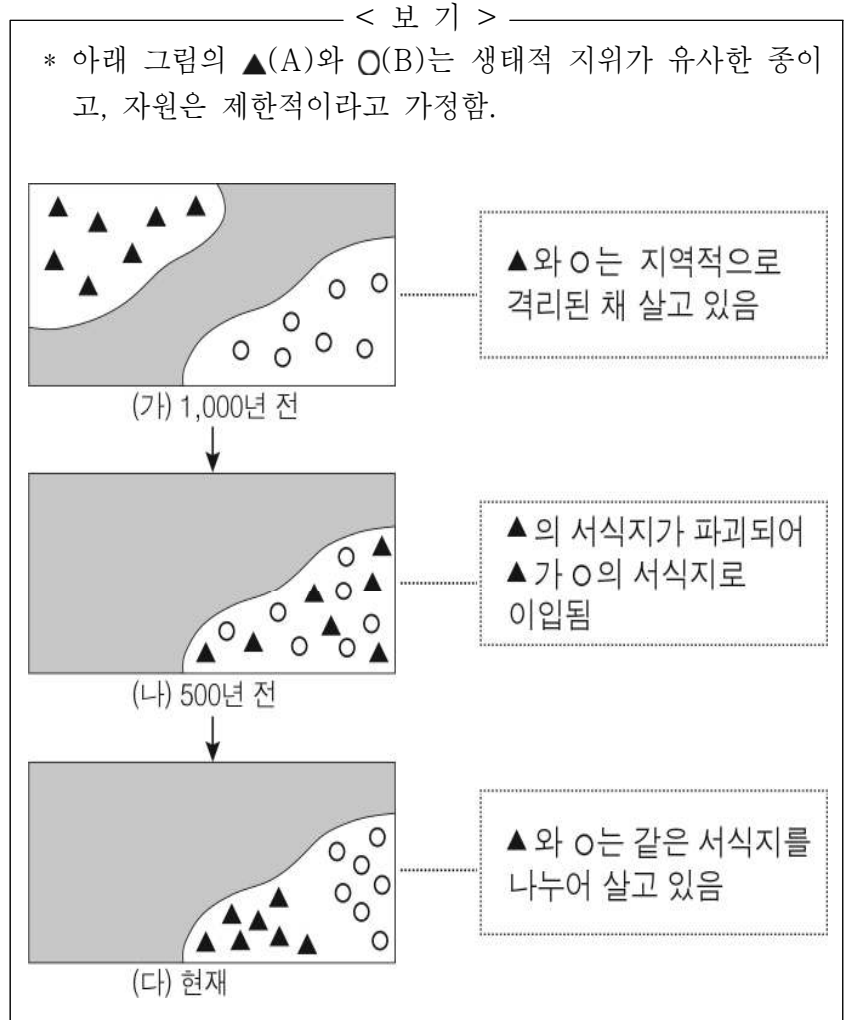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의 결과는 동소성 개체군과 이소성 개체군의 체형 구조를 비교함으로써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섬과 B섬에 각각 살고 있는 이소성 개체군인 조류의 경우 종간 경쟁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먹이를 먹고, 이로 인해 부리의 크기가 유사하다. 그런데 이들이 동일한 지리적 영역을 이룬 채 살게 되면 서로 다른 크기의 씨앗을 먹도록 부리의 크기가 달라지는 체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처럼 동소성 개체군의 경우 같은 자원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서로 체형의 구조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체형 구조의 변화를 ㉢‘형질치환’이라고 한다.

현재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종들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쟁에 적응하면서, 경쟁적 배제와 분서, 형질치환 등의 과정을 거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시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용어의 개념을 밝히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④ 권위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통념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 ⑤ 차이점을 중심으로 대상을 두 종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의 A와 B는 ‘이소성 개체군’으로 ‘경쟁적 배제’가 없었겠군.
- ② (나)의 A와 B는 ‘동소성 개체군’이 되면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생겼겠군.
- ③ (나)의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A나 B는 ‘형질치환’이 일어날 수도 있겠군.
- ④ (나)의 A와 B가 먹이를 먹는 시간대를 달리한다면 A와 B는 ‘이소성 개체군’이 되겠군.
- ⑤ (다)의 A와 B는 장소를 나누어 서식하는 방식을 통해 ‘경쟁적 배제’를 피한 상태이겠군.

36.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체형 구조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 ② ㉢은 더욱 치열한 ㉠을 유발하게 된다.
- ③ ㉡과 ㉢은 자원의 분할을 수반한다.
- ④ ㉠과 ㉡은 필연적으로 ㉢을 초래한다.
- ⑤ ㉡은 ㉠과 ㉢이 발생했을 때에만 이루어진다.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온난화로 기상 이변이 빈번해지면서 최근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인 CCS(Carbon Capture & Storage)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CCS 기술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제철소, 시멘트 공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고농도로 포집한 후 안전한 땅속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CCS 기술에는 ‘연소 후 포집 기술’, ‘연소 전 포집 기술’, ‘순산소 연소 포집 기술’이 있다. 연소 후 포집 기술은 화석 연료가 연소될 때 생기는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방법이고, 연소 전 포집 기술은 화석 연료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를 연소 전 단계에서 분리하는 방법이다. 순산소 연소 포집 기술은 화석 연료를 연소시킬 때 공기 대신 산소를 주입하여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만 배출되게 함으로써 별도의 분리 공정 없이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중 연소 후 포집 기술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수많은 이산화탄소 발생원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실용화되기 시작하면서 CCS 기술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연소 후 포집 기술은 흡수, 재생, 압축, 수송, 저장 등의 다섯 공정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이를 위해서는 흡수탑, 재생탑, 압축기, 수송 시설, 저장조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는 물, 질소 그리고 10~15% 농도의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 배기가스는 먼저 흡수탑 하단으로 들어가게 되고, 흡수탑 상단에서 주입되는 흡수제와 접촉하게 된다. 흡수제에는 미세 구멍, 즉 기공이 무수히 많이 뚫려 있는데 이 기공에 이산화탄소가 유입되면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달라붙게 된다. 흡수제가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만을 선택적으로 포집하면 물과 질소는 그대로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흡수제가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한계, 즉 흡수 포화점에 다다르면 흡수제는 연결관을 통해 재생탑 상단으로 이동하게 되고, 여기에서 고온의 열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열처리를 하는 이유는 흡수제에 달라붙어 있는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기 위해서이다. 흡수제에 달라붙어 있던 이산화탄소는 130℃ 이상의 열에너지를 받으면 기공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이산화탄소와 분리된 흡수제는 다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원래의 상태로 재생된 후, 흡수탑 상단으로 보내져 재사용된다. 이처럼 흡수제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흡수제가 다시 재생되는 흡수와 재생 공정을 반복하면 90% 이상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모을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모아진 이산화탄소는 이송에 편리하도록 압축기에서 압축 공정을 거치게 된다. 압축된 이산화탄소는 파이프라인이나 철도, 선박 등의 수송 시설을 통해 땅속의 저장소로 이송되고, 저장소로 이송된 이산화탄소는 800m 이상의 깊이 있는 폐유전이나 가스전 등에 주입되어 반영구적으로 저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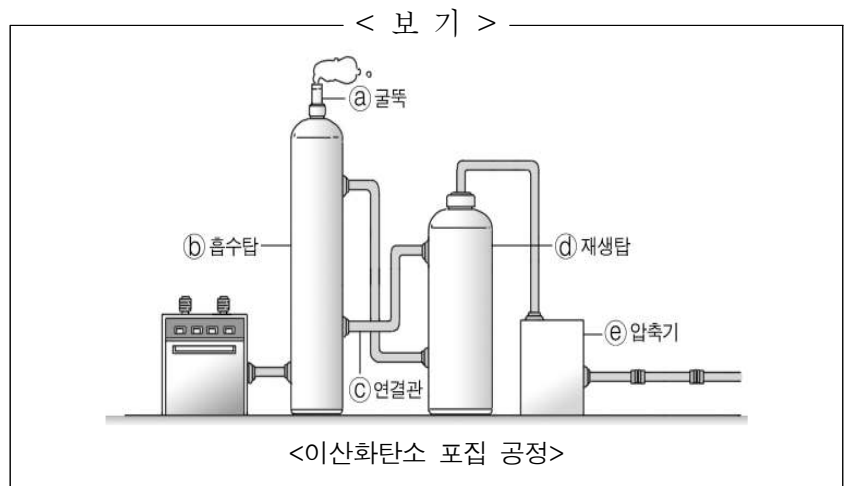
오늘날 CCS 기술은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공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는 것은 극복할 과제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소 후 포집 기술의 핵심적 연구는 ㉠ 흡수 포화점이 향상된 흡수제를 개발하여 ㉡ 경제성이 높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 포집: 물질 속에 있는 미량의 성분을 분리하여 잡아 모으는 일.

37.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CCS 기술의 개념
- ② CCS 기술의 종류
- ③ CCS 기술의 필요성
- ④ CCS 기술의 개발 과정
- ⑤ CCS 기술이 극복해야 할 과제

38.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는 물과 질소가 포함되어 있다.
- ② b에서는 화학반응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흡수제에 달라붙는다.
- ③ c는 흡수 포화점에 다다른 흡수제가 이동하는 통로이다.
- ④ d에서는 흡수제가 이산화탄소의 열을 흡수하면서 재생된다.
- ⑤ e에서는 고농도의 이산화탄소가 이송에 편리하도록 압축된다.

39. ㉠이 ㉡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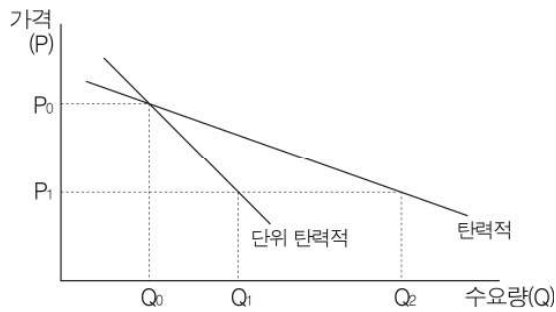
- ① 흡수와 재생 공정을 일원화할 수 있기 때문에
- ② 흡수와 재생 공정의 반복 횟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 ③ 재생 공정에서 흡수제의 재생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 ④ 재생 공정이 없어도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기 때문에
- ⑤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소로 옮기는 운송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동일한 환경에서 야구공과 고무공을 튕겨 보면, 고무공이 훨씬 민감하게 튀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고무공은 야구공에 비해 탄력이 좋다. 일정한 가격에서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물건의 양인 수요량에도 탄력성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도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경제학에서는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 변화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수요 탄력성이라고 한다.

(나)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 비율을 가격의 변화 비율로 나눈 값이다. 일반적으로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하므로 수요 탄력성은 음(-)의 값을 갖는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음의 부호를 생략하고 절댓값만 표시한다. 예를 들어 어떤 재화의 가격이 1% 오를 때 이 재화의 수요량이 2% 떨어졌다면 수요 탄력성은 절댓값인 '2'가 된다.

(다) 가격에 따른 수요량 변화율에 따라 상품의 수요는



‘단위 탄력적’, ‘탄력적’, ‘완전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으로 나눌 수 있다. 만약 어떤 상품의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면 수요 탄력성은 1이 된다. 이 경우 수요는 ‘단위 탄력적’이라고 불린다. 어떤 상품의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면 수요 탄력성은 1보다 크게 된다. 이 경우 수요는 ‘탄력적’이라고 불린다. 한편 영(0)에 가까운 아주 작은 가격 변화에도 수요량이 매우 크게 변화하면 수요 탄력성은 무한대가 된다. 이 경우의 수요는 ‘완전 탄력적’이라고 불린다. 소비를 하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치품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수요 탄력성이 1보다 작다면 수요는 ‘비탄력적’이라고 불린다. 만일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에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수요 탄력성은 영(0)이 된다. 이 경우 수요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불린다. 생필품이 이에 해당한다.

(라) 수요 탄력성의 크기는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 준다.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액은 물론 가격에 수요량을 곱한 것이다. 먼저 상품의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를 따져 보자. 이 경우에는 수요 탄력성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정도에 비해 수요량이 많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의 지출액은 가격이 오르기 전보다 감소한다. 반면에 가격이 내릴 때에는 가격이 내린 정도에 비해 수요량이 많아지므로 소비자의 지출액은 증가한다. 물론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위와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즉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의 지출액은 증가하며,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의 지출액은 감소하게 된다. 그렇다면 수요 탄력성이 1인 경우에는 소비자의 지출에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이 경우에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

이 똑같기 때문에 지출액에는 결국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된다.

(마) 수요 탄력성과 소비자 지출 사이의 관계는 소비자 개인은 물론이고 시장 전체에도 적용된다. 시장 전체의 경우, 탄력성은 시장 수요의 탄력성이고 소비자 전체의 지출액은 전체 기업의 수입과 같다. 시장 수요가 탄력적인 재화는 가격이 내릴 때 시장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므로 모든 가게의 지출액은 증가한다. 이에 따라 전체 기업의 수입도 커진다.

40. (가)~(마)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수요 탄력성의 개념
- ② (나): 수요 탄력성의 계산 및 표시 방법
- ③ (다): 가격에 따라 수요가 달라지는 이유
- ④ (라): 수요 탄력성과 소비자 지출의 관계
- ⑤ (마): 가게와 기업의 관계에 대한 수요 탄력성의 적용

41.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밑줄 친 정책의 방향에 대한 추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A국가의 정부는 경제 안정화를 위해 개별 소비자들이 지출액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 신문기사 -

- ① 생필품의 가격은 높이고 사치품의 가격은 유지하려 하겠군.
- ② 생필품의 가격은 낮추고 사치품의 가격은 높여 하겠군.
- ③ 생필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사치품의 가격은 낮추려 하겠군.
- ④ 생필품과 사치품의 가격을 모두 유지하려 하겠군.
- ⑤ 생필품과 사치품의 가격을 모두 낮추려 하겠군.

42. <보기>는 어느 가정의 예산 계획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책은 가격이 10% 올랐기 때문에 수요량을 10% 줄인다.
- 라면은 가격이 10% 내렸기 때문에 수요량을 20% 늘린다.
- 국수는 가격이 10% 올랐기 때문에 수요량을 20% 줄인다.

- ① 책은 수요가 단위 탄력적이므로 지출액에는 변화가 없겠군.
- ② 라면은 국수보다 수요 탄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라면은 책보다 수요 탄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국수는 책보다 수요 탄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국수는 수요가 탄력적이므로 지출액이 감소하겠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청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목조 건물에 여러 가지 색으로 무늬를 그려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을 말한다. 단청은 건물의 보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작되었는데, 이후 여러 가지 색감으로 문양을 더함으로써 보존 효과뿐만 아니라 장식성과 상징적 의미도 부여하게 되었다.

단청의 문양은 건축물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봉황은 주로 궁궐에만 사용되었고, 사찰에는 주로 불교적 소재들이 문양으로 사용되었다. 또 극락왕생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연꽃 문양을 그리고 자손의 번창을 나타낼 때는 박쥐 문양을 그렸다.

단청은 붉은색을 의미하는 ‘단(丹)’과 푸른색을 의미하는 ‘청(靑)’을 결합하여 만든 단어이다. 이처럼 상반된 색을 뜻하는 두 글자가 결합된 ‘단청(丹青)’은 대비되는 두 색의 조화로운 관계를 의미한다.

하지만 단청에서 붉은색과 푸른색만을 쓴 것은 아니었다. 단청은 오방색을 기본으로 하여 채색하는데, 여기서 오방색이란 오행*의 각 기운과 직결된 청(靑), 백(白), 적(赤), 흑(黑), 황(黃)의 다섯 가지 기본색을 말한다. 단청을 할 때에는 이 오방색을 적절히 섞어 여러 가지 다른 색을 만들어 썼는데, 이 색들을 적색 등의 더운 색 계열과 청색 등의 차가운 색 계열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단청의 가장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빛넣기’, ‘보색대비’, ‘구획선 긋기’ 등이 있다.

빛넣기는 문양에 백색 분이나 먹을 혼합하여 적절한 명도 변화를 주는 것으로, 한 계열에서 명도가 가장 높은 단계를 ‘1빛’, 그보다 낮은 단계는 ‘2빛’ 등으로 말한다. 빛넣기를 통한 문양의 명도 차이는 시각적 율동성을 이끌어내어 결과적으로 단순한 평면성을 탈피하는 시각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명도가 낮은 빛은 물러나고 명도가 높은 빛은 다가서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된다.

보색대비는 ㉠ 더운 색 계열과 차가운 색 계열을 서로 엇바꾸면서 색의 층을 조성함으로써 색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오색구름 문양을 단청할 때 더운 색과 차가운 색을 엇바꾸면서 대비시키는 방법이 그것인데, 이것을 통해 색의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문양의 시각적 장식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구획선 긋기는 색과 색 사이에 흰 분으로 선을 긋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보색대비가 일어나는 색과 색 사이에는 빠짐없이 구획선 긋기를 한다. 이 기법을 사용하면 문양의 색조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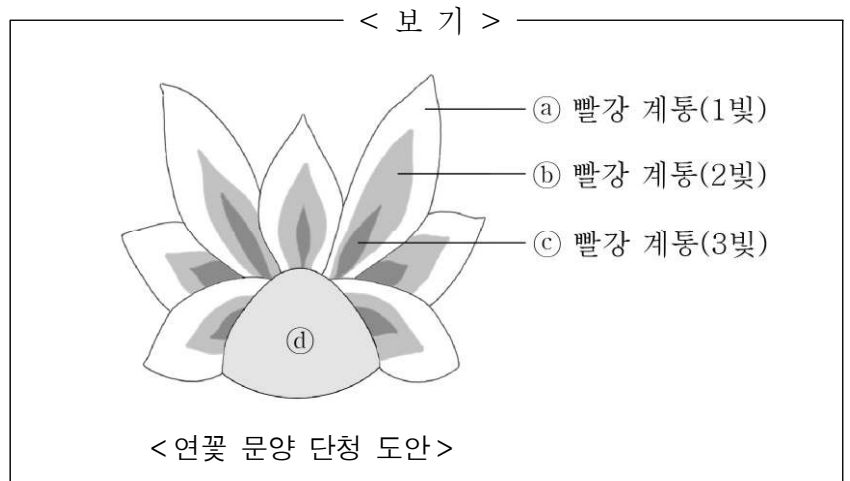
이러한 빛넣기와, 보색대비 그리고 구획선 긋기 등의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시각적 단층을 형성함으로써 단청의 각 문양은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얻게 된다.

* 오행: 우주 만물을 이루는 다섯 가지 원소. 금(金)·수(水)·목(木)·화(火)·토(土)를 이른다.

4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단청은 오방색을 기본으로 하여 채색한다.
- ② 단청의 명도 조절에는 백색 분이나 먹 사용한다.
- ③ 단청은 건축물의 보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 ④ 건축물의 성격에 따라 그려지는 단청의 문양은 다르다.
- ⑤ 단청에서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구획선 긋기를 사용한다.

4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과 ㉡의 보색대비를 통하여 문양의 색조는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 ② ㉢는 ㉠에 비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물러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
- ③ ㉠, ㉡, ㉢는 명도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문양의 시각적 율동성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겠다.
- ④ 보색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에 청색 계열의 색을 칠해야겠다.
- ⑤ <보기>의 문양이 건축물에 단청이 되었을 경우 극락왕생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더하는 효과가 있겠다.

45. ㉠을 활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각적 장식 효과를 얻기 위해
- ② 여러 가지 빛을 만들어내기 위해
- ③ 명도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 ④ 단청 작업 시 빛 넣기를 쉽게 하기 위해
- ⑤ 자연 만물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